

한미 수의부대 연합 훈련



나익주
육군 수의병과장 대령
군진지부장
kssnacho@hanmail.net

6.25 전쟁에서 함께 싸운 한·미 양국 군대는 지난 60년간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 한·미 양국군의 수의장교 간의 교류와 협력 관계 역시 한미동맹차원에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므로 병과장의 임기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병과장이 2008년 1군견훈련소(現 1군견교육대) 최초 수의장교 지휘관을 수행하면서 수의부대 최초 한·미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한·미 수의부대 연합훈련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금년도 한·미 연합훈련은 양측의 야전 전개 시설에서 양

한 양질의 군용 부식을 보증한다. 또한 먹는물 수질검사, 식품공장 위생점검, 취사장 위생점검을 통하여 종합적인 식품 위생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군견교육대는 1군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수의장교가 지휘관과 의료진을 맡아 육·해군의 군견 양성·작전 및 수의학적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미측의 106수의근무대는(106th Medical Detachment, Veterinary Support Service) 주한미군 65의무여단 예하부대로서 주한미군 전체를 대상으로 장병의 식품위생과 군견(군가족 반려견 포함)에 대한 수의학적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훈련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수의병과장을 중심으로

육군본부와 참여 실무진이 함께 미측과 2차례의 사전 실무토의를 거쳐 훈련일정과 세부 내용을 합의하였고 최종적으로 4월 말에 6일간 1부 훈련을 서울의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2부 훈련을 춘천의 1군견교육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훈련 첫째날 주한미군 용산기지로 모인 병과장과 한측 수의장교 훈련 참석자들은 야외 훈련장에서 106수의근무대의 야전식품검사시설 및 야전군견진료시설의 전개에 참여하였으며 106수의근무대장 Timothy Settle 대령의 안내로 시설과 운용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미측의 야전시설은 한측과 유사한 텐트형이었으나 냉난방 및 전기공조시설과 잘 결합된 것이



1차 실무토의



2차 현장 실무토의



미측의 야전텐트형 시설 전개



미측의 야전 식품검사시설 소개

측 인원이 함께 야전 식품검사 절차와 군견 진료절차를 숙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한측에서는 식품검사대와 1군견교육대, 미측에서는 106수의근무대가 참여하였다. 한측의 식품검사대는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수의장교가 지휘관과 검사반장 직책을 수행하며 군납 식품에 대한 식품검사, 정밀분석(식중독균, 농약, 방사능, 성분분석)을 통한 안전

이 특징이었으며 내부의 장비 역시 최신의 고가 품목 보다는 이동성이 좋고 사용이 간단하도록 구성되어 합리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여겨졌다.

미측의 야전식품검사체계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기본검사부터 상용화된 건조필름(petrifilm plate, 즉석사용이 가능한 미생물 배지)을 이용한 식품 미생물 오염도 간이 검사, 측정기



합동 식품위생 검사



식품 위생검사 간 현장 토의



합동 군견 진료 토의



야전 임상병리검사

기를 이용한 식품 방사능 오염도 검사, 군용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기(real-time PCR)을 이용한 식품 식중독균 및 탄저 등의 생물학 무기 오염 검사까지 이뤄진다. 우리군의 꾸준한 장비 확보와 교육 덕분에 미측과 비교하여 식품검사체계 수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우리 군의 수의장교가 미측의 시설 장비를 이용한 연합 작전 능력이 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우리 수의병과가 먹는물 수질검사 및 취사장 등보관·조리 단계의 위생점검을 수행함으로써 미측보다 더 포괄적인 식품위생지원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훈련 일정으로 양측 수의장교들이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미군에 납품되는 식품에 대한 실제 합동 식품검사를 하고 현장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요 교훈은 아래와 같다. 미측의 즉석전투식량(Meals Ready to Eat, 이하 MRE) 외부 포장에는 유통기한 표시와 더불어 추가적인 부패·변질 여부 판단을 돕는 라벨형태의 온도시간지시기(Time Temperature Indicator, 이하 TTI)가 부착되어 있다. TTI는 고온에 반응하는 염료가 포함되어 유통 간 고열에 노출된 이력이 진한 색깔로 표시되므로 수의장교가 MRE의 식품검사 간 부패·변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미군의 풍부한 경험이 반영된 좋은 사례이다. 또다른 교훈은 미군에서는 군용 식품의 저장 간 냉장기능의 고장에 대비한 훈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저장과 냉장 기능의 고장 시 온도와 고장 지속시간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매뉴얼로 만들어 군용식품의 취식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것인데 이 역시 미군의 경험상 야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응

하는 훈련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였다.

2부 훈련으로 장소를 옮겨서 춘천의 1군견교육대로 미측의 수의진료반이 이동 전개하여 군견교육대의 동물진료반과 함께 군견 합동진료, 시나리오 식 군견 응급처치 절차 숙달, 한측 군견교육대 시설 견학을 실시하였다. 미측의 야전형 수의진료시설을 훈련장에서 함께 설치한 후 군견교육대의 진료 예정 군견들을 대상으로 미측의 야전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야전 상황을 가정한 합동진료 및 사례토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한 미측의 장점으로

는 장기 수의장교에 대하여 임상 전문의과정까지 위탁교육을 지원하여 양성하고 의료보조인력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점과 X-ray 등 이동형 진단장비가 잘 구비되고 치료 제한 시 후방 전문병원으로 신속한 후송 체계가 갖춰진 점이였다.

1군견교육대의 군견진료시설은 미측에서도 인정할만큼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으나 미측과 같은 야전 진료 시설 및 체계는 향후에 발전시킬 여지가 많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군견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식 훈련으로는 군견의 화생방 피폭 시 제독, 응급치료 절차와 군견 다발 질환인 폭발성 외상(blast injury)과 위확장염전증(Gastric Dilatation Volvulus)에 대한 응급처치 숙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측의 최근 전장 경험사례와 대응방향을 알 수 있었다. 미측에서는 우리군의 수의장교가 미측과 달리 군견의 양성 및 작전까지 관여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수의병과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군의 수의병과와 주한미군 수의근무대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양측의 노하우를 교환하여 상호발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미측의 수의근무대와 비교하여 우리군의 능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미측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다. 향후에도 우리군의 수의병과와 주한미군 수의근무대와 정기적인 교류와 훈련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한미 양측 수의계 발전에 기여하리라 본다. ♡